



김성영 윤선경(유건 유현) 선교사 기도편지 (102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3)

까람!

저희 가정은 지난 7~8월 한국방문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케냐에 잘 복귀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참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포켓 사역지에 도착하니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고아원아이들과 현지인들이 저희를 참으로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직원 도로시가 먼 길 오가느라 고생했다며 몸보신 하라며 닭을 선물로 주어서 고맙습니다. 한국가기전 고장 났던 자동차를 고치고, 여러 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소식 보시고 함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세레요우!



TODO토도 교회

나뭇가지로 그늘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토도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간 가축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총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곳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는 마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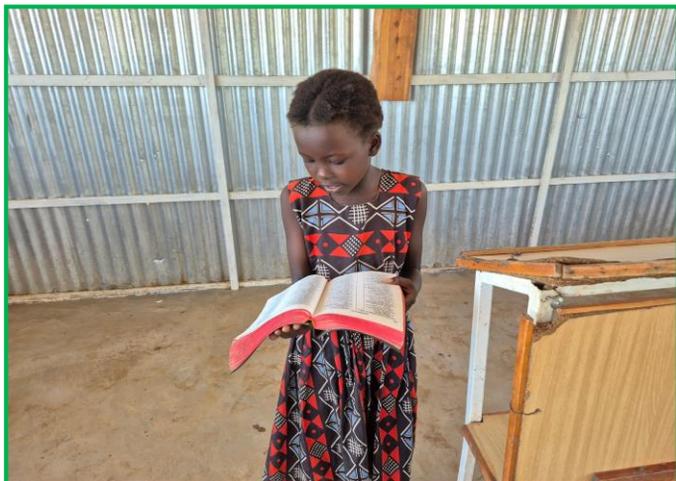




주일 말씀 사역

한국에서 돌아와 포콧 메우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발에 구멍 난 옷을 입은 야윈 아이들을 보며 여전히 이들은 1950년대를 사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 간증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포콧어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은혜 받은 성경구절을 읽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콧어성경읽기프로그램>을 통해 나누어진 성경책을 통해 일하고 계심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포콧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포콧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브레이크가 끊어진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카바르넷에 다녀왔습니다. 카바르넷까지 도착하기까지 4시간 거리가 마치 8시간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다행히 좋은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가지 용접하고 교체하는 등의 필요한 모든 수리를 다 받고 차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나이로비까지 가지 않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재정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아원 사역 -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이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염소도 잡아 먹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자동차, 비행기)을 선물로 받으니 너무 행복해합니다.

포켓 학교는 10월 17일 부터 3개월동안 방학기간입니다. 아주 긴 방학인데요. 아이들이 친척집에 가는 한달을 제외하고 두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big&little 프로그램, 학교선생님 2명 더 섭외해서 수업, 미국



선물로 받은 비행기 날리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색종이 하트팔찌 만들기.

KITOKON 키토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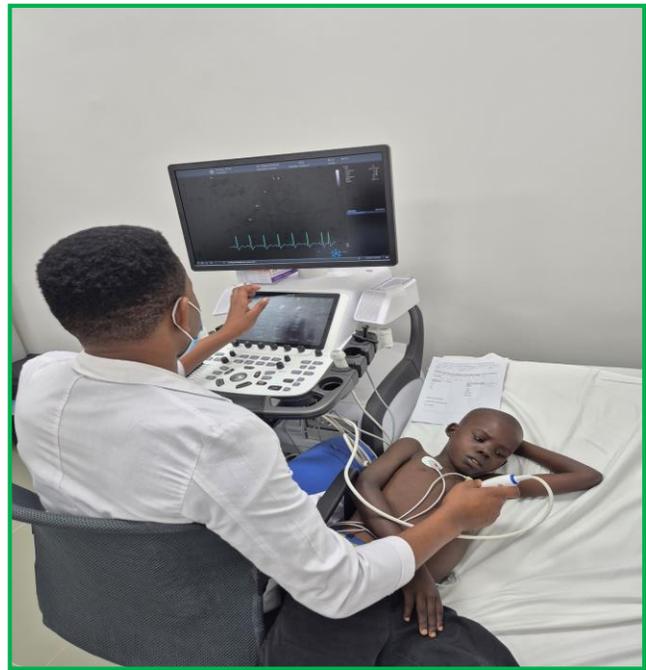
지난 5월에 심장수술을 받은 키토콘을 데리고 1박 일정으로 수술 받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INR (혈액응고도) 검사와 심장초음파를 보시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키토콘이 아무 이유 없이 고열이 날 때가 있는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We treat, Jesus

LOKTARI 록타리



다리수술을 받은 록타리의 새로운 보조신발을 제작해야 합니다. 병원이 너무 멀어서 석고테이프를 다리에 감아 굳힌 후 잘라서 발모양의 석고를 병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작

고아원의 쌍둥이 중 한명인 아이작이 발에 화상을 당해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겁과 눈물이 많은 아이인데 메디폼으로 통증 없이 치료해 주니 싹 나았고 다음부터 저만 따라다니니다.^^



학교 가방 만들기

아이들 학교 갈 때 매는 가방이 많이 낡고 헤어져 있어서 윤선교사가 아이들 학교 갈 때 매는 가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 가방 47개를 며칠 동안 만드느라 수고했습니다.



고아원 수리 보수

야생원숭이들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엌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잠궈도 지붕과 함석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니 틈새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워터탱크, 전등, 의자 등등 수리할 것이 참 많았습니





영유아 결연 프로그램



19가정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달엔 비누도 주었는데 할머니 한분께서 '옷을 빨아야 하는데 비누가 없어서 하나님 비누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받았으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고아원 라면 파티

나이로비 한국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한 라면을 후원해주셔서 장작불에 라면 100개를 끓였습니다!! 처음 먹는데도 어찌나 잘 먹던지 큰 아이들은 국물까지도 다 마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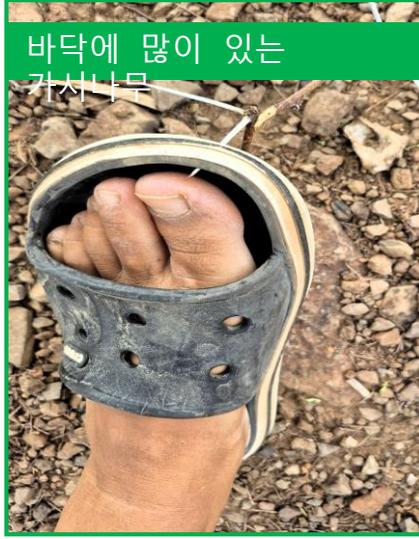


포콧에서의 일상

한국 방문 후 돌아와서 저희 부부는 다시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로 다짐했습니다. 여전히 돌을 들면 전갈이 있었고, 바닥엔 가시가 많고, 날씨도 더운 예측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주어진 사역 가운데 웃으며 감사할 일이 어김없이 생기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건유현이는 학교에서 먹는 것을 좀 힘들어 하지만, 학교생활을 좋아하고,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건이는 한국에서 피자과 양념치킨을 많이 먹어 몸무게가 10키로그램이 늘었는데 벌써 다 빠졌간다고 합니다. ^^



바닥에 많이 있는
가시나무



터진 축구공
불이끼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이 매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2. 하나님께서 고아원에의 74명의 아이들과 7명의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 아이들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성장하고 믿음의 군사로 자라도록

-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도록

- 방학동안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포콧교회마다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4. 영유아결연과 이웃을 돌보는 구제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고 열매맺도록

5. 유건유현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장하도록

6.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11월 초 김홍정 이경희 선교사님 포콧 방문

- 교회 1개, 물탱크 3개 설치, 고아원 물탱크

1개 설치

11월 중순 : 장상호 정국강 선교사님 방문

- 콜로와, 카이사캣 마을과 고아원 아이들 의료선



2025년 10월 케냐에서
선교소식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렛요우!



고아원 사역 - 염소 고기 먹는 날!

지난 한국 방문 때 은성교회에서 선교보고를 했는데 은성교회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염소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총 295만원을 후원해주셔서 49마리의 염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한국 방문 때까지 2년 동안 매달 2마리씩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고아원 아이들이 건강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랄 줄 믿습니다.

